



寶山墓를 통해 본 遼代 초기 시각문화

Murals of the Baoshan Tombs and Visual Culture of the Early Liao Period

저자 (Authors)	지민경 Ji, Minkyung
출처 (Source)	미술사논단 , (41), 2015.12, 7-38 (32 pages) Art History Forum , (41), 2015.12, 7-38 (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연구소 Center for Art Studies, Korea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98315
APA Style	지민경 (2015). 寶山墓를 통해 본 遼代 초기 시각문화. 미술사논단, (41), 7-3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8/04/12 10: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寶山墓를 통해 본 遼代 초기 시각문화

지민경

I. 머리말

池攸暻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과
박사
중국 및 한국미술사

네이멍구 츠펑(赤峰) 시에 위치한 바오산 묘(寶山墓)는 요 태조 天贊二年(923)으로 기년된 묘를 포함한, 요 벽화고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예이다. 묘의 수도인 上京 인근에 위치한 바오산(寶山)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요대 고분군에서 발굴된 것으로, 무덤의 규모와 내부 장식 등으로 판단컨대 요 황실가 인물의 묘로 추정된다. 바오산 묘는 중국 고분벽화의 전통 제재인 묘주의 생활모습 등을 포함하여 漢武帝와 西王母, 楊貴妃, 蘇若蘭 등에 관한 다양한 역사 고사 및 신화를 주제로 한 벽화를 보이고 있으며, 화려한 채색과 수준 높은 표현으로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바오산 묘는 요 초기 거란사회에서 계층을 막론하고 고유 장례법인 遷葬 등의 관습이 만연하였을 것으로 믿어왔던 기존 학계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귀중한 자료이다. 최근 바오산 묘의 학술적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관련 연구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벽화의 도상 분석에 그쳐왔으며, 그 의미도 한족 문화로 대표되는 중원문화와의 관련성 및 거란인의 漢化 과정 등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는 바오산 묘의 사례는 한화와 같은 연속성과 단계적 발달을 전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필자의 최근 논저: 「北宋·金代 裝飾古墳의 소개와 기초 분석」, 『美術史論壇』33, 2011. 12; 「10~14세기 동북아 고분벽화 예술의 전개와 고려 벽화 무덤의 의의」, 『미술사연구』25, 2011.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바오산 묘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를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유행했던 요대 초기 문화의 한 증거로서 해석해보려고 한다. 요 초기 중원지역 왕조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요의 땅에 유입된 신문물과 신지식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 발생하는 충돌과 화해의 양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¹ 구체적으로 오대십국 혼란기의 중원 제패자로서 거란 통치자들이 중원 지역의 이미지를 수용, 변형하는 데에 있어 작용한 정치적 이유를 분석하고, 더불어 이 시기에 새롭게 탄생한 이미지가 이후 중국의 시각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요대 벽화고분과 바오산 묘

1. 바오산묘 소개

1993년 겨울, 네이멍구 자치구 츠핑 시 아루커얼친 기(阿魯科爾沁旗) 바오산 촌 인근 요대 무덤군 내의 대형 벽화 묘 1기가 도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 바오산 1호 묘로 명명되는 이 무덤의 도굴 현장을 수습하면서 긴급 발굴 및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부장품은 도굴되어 남은 것이 거의 없었지만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벽화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였다. 또한 바오산 1호 묘의 발굴이 진행되면서,³ 묘의 서쪽 40미터 지점의 또 다른 묘의 도굴 흔적이 발견되어 1996년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이 무덤은 바오산 2호 묘로 명명되었다.

바오산 1, 2호 묘는 전형적인 중원계 塋築墳과 石築墳이다. 묘실 면적은 대략 4.5~5.5 제곱미터 정도로 단실묘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1호 묘는 대략적으로 남북축에 놓여있으며 2호 묘의 묘실은 동서축에 놓여있다. 두 묘 모두 경사로

¹ 요대의 벽화고분은 황실과 황실의 친인척 및 통치계급이 속하는 상류층 전유의 문화였다. 요의 上京, 中京 및 東京 (현 랴오닝성, 지린성 및 이와 인접한 네이멍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축조된 族葬 형태의 벽화고분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던 요의 상류 계급이 벽화고분의 후원을 통해 고유의 시각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² 이 무덤군은 1958년 고분 도굴 사건을 수습하고 남은 벽화를 조사했던 지역 고고학자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李逸友, 「阿魯科爾沁旗水泉溝的遼代壁畫」, 『文物參考資料』 4(1958), p.72.

³ 발굴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齊曉光, 「遼代考古又有重要發現-內蒙古發掘寶山遼初壁畫墓」, 『中國文物報』1(1995), p.1;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處, 「內蒙古赤峰寶山遼壁畫墓發掘簡報」, 『文物』1(1998), pp.73-95.

로 이루어진 묘도와 門樓가 화려한 묘문, 실내외에 벽돌과 벽화로 표현된 다양한 倣木構造, 인간세계와 천상세계로 나누어지는 수직축 상의 벽화 주제 구성 등, 중원적 묘제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 이와 동시에, 벽화 상의 인물의 대부분이 거란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중원 문화와 요 문화의 결합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준다.

두 무덤에서 축조 년대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자 기록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1호 묘 묘실 내 석실 서벽 벽화에 天贊二年(923)의 기년이 적혀있는 墨書로, 이를 통해 1호 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거란 귀족 묘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으로 파악되었다.⁴ 다른 하나는 2호 묘에서 발견된 석판에 쓰인 契丹小字의 문구로 그 내용은 아직까지 해석된 바 없다. 그러나 야율아보기가 920년 契丹大字를 창제하고 그의 동생 耶律迭剌이 契丹小字를 창제하여 대략 926년 공표하였으므로,⁵ 무덤은 그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나, 1호 묘와 묘실의 구조 및 벽화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점이 많아 1호 묘와의 축조 시기의 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1호 묘 벽화의 묵서에 따르면 묘주는 勤德이라는 인물로, 大少君의 둘째 아들이며, 사망 당시 나이는 14세였다. 무덤 축조 시기인 10세기 초반 요의 역사 기록상 “少君”이 언급되는 것은 『舊五代史』에서다. 요 태조 야율아보기에게 세 아들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어린 아들은 安端少君이라고 하였다.⁶ 이 기록 하나로 묘주를 야율아보기의 손자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⁷ 무덤의 규모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묘주가 황족의 일족임은 확실해 보인다. 묵서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벽화의 내용상 1호 묘는 남성의 황족 혹은 귀족이며, 2호 묘의 묘주는 일족의 여성으로 추측되는데, 1호 묘와 2호 묘 간의 거리 상, 또 族葬 현상이 두드러지는 요의 묘제 상, 두 묘주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⁴ 盖之庸, 「寶山墓壁畫墓發掘紀實」, 『中國文物報』7(1996), p.4; 全文은 다음과 같다. 天贊二年癸未歲, 大少君次子勤德年十四, 五月廿日亡, 當年八月十一日於此殯. 故記.

⁵ 『遼史』卷2, 本紀 第2, 「太祖 耶律阿保機」下; 같은 책, 卷64, 表 第2 「皇子表」; 中國歷史大事典編委, 『中國歷史大事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p.2008.

⁶ 『舊五代史』卷137, 「外國列傳」 第1; 『契丹國志』卷14, 「帝王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⁷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 묘주가 태조의 직계 자손임을 짐작하고 있으나, 『遼史』의 기록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대소군의 정체는 불분명해진다. 『遼史』는 태조에게 네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 중 세 아들이 정비인 淳欽皇后 述律氏(879-953)의 소생이고 한 아들은 宮人 蕭氏 소생이다. 『舊五代史』에서 정비 소생의 황자만을 태조의 아들로 인식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어린 아들이었던 少君은 章肅皇帝 耶律李胡(911-960)가 된다. 야율이호에게 두 아들이 있기는 했으나 923년은 그가 12세 되던 해이므로, 그의 아들이 13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소군은 태조의 아들이 아닌, 벽화를 그린 화공이 단순히 묘주인 황족인 남성을 지칭하여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遼史』卷64, 表 第2 「皇子表」; 같은 책, 卷66, 表 第2 「皇族表」.

2. 요대 벽화고분과 바오산 묘 연구

요대 벽화 묘 발달사에서 바오산 묘의 위치를 설정하는 일은, 그 기원과 계승을 추적함으로써 가능하다. 요대의 벽화 묘는 요의 전 시대를 거쳐 중국 네이멍구 지역과 중원 북부지역, 그 중에서도 요의 五京(上京, 中京, 東京, 西京, 南京)을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각 도시 경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서로 다른 문화, 풍속, 역사, 정치 상황으로 인해 요의 벽화 묘는 지역별 또 시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발전해갔는데, 바오산 1호 묘는 축조 시기가 야율아보기가 契丹國을 세우고 遼라는 국호를 쓰기 이전인 만큼 일반적으로 요 초기의 무덤으로 불리지만, 동시기 유사한 무덤이 발굴된 바 없기에 요대 벽화고분 발전과정에서 선후 관계를 추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바오산 묘를 요대 벽화 묘 중 어떠한 계통으로 분류, 인식하였는가? 요 벽화고분의 전문적 분류를 처음 시도한 것은 왕치우화(王秋華)인데 그는 출토유물, 묘제 형식, 묘 벽화 및 관장식 등에 의거해 네이멍구 동북지역과 허베이성 동북부를 제 1지역으로 묶고 허베이의 燕雲 지역과 大同을 중심으로 한 산시 북부를 제 2지역으로 묶어 각 지역 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대 무덤의 유형을 세분화하였다.⁸ 왕치우화는 네이멍구 지역의 벽화 발전 제 1기를 요 景宗(耶律賢, 948~982) 시기까지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의 벽화 묘는 다양한 형태의 벽화 묘, 장식묘, 彩繪木棺 등이 발견되어 통일된 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1기는 2기로 설정된, 요 聖宗(耶律隆緒, 971~1031)과 興宗(耶律宗眞, 1016~1055) 시기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네이멍구지역에서 발견된 벽화 묘만 보더라도, 요 초기 무덤으로 인정되는 바오산 묘 이외에 몇 기 되지 않는 무덤들 모두 서로 다른 주제와 양식의 벽화를 보여주고 있다.⁹ 왕치우화 이후의 연구는 전 지역의 요대 벽화 묘를 단지 시기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적 다양성과 더불어 묘주의 신분 및 민족적 출신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볼 것에 동의한다.¹⁰ 이러한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바오산 묘는 대략적으로 요 상경에 거주한 황족 혹은 귀족계의 무덤으로 분류되었다.

⁸ 王秋華, 「遼代墓葬分區與分期的初探」, 『遼寧大學學報』3(哲学社会科学版, 1982), pp.43-46; 王秋華, 「近十年間刊的遼代墓葬壁飾研究」, 『遼寧大學學報』1(哲学社会科学版, 1993), pp.82-84; 王秋華, 「遼代契丹族墓葬壁面裝飾分期」, 『北方文物』1(1994), pp.45-49.

⁹ 孫建華, 「通遼市科尔沁左翼后旗吐尔基山遼墓壁畫」, 『內蒙古遼代壁畫』(北京: 文物出版社, 2009), pp.55-5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阿魯科尔沁旗文物管理所, 「遼耶律賢之墓發掘簡報」, 『文物』1(1996); 盖之庸, 「律翼之墓發掘親歷記」, 『文物天地』2(1994).

¹⁰ 대표적인 연구자인 장평은 요 벽화 묘를 황실, 거란 귀족, 요 지역 한인의 무덤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張鵬, 『遼墓壁畫研究』(天津: 人民美術出版社, 2008).

바오산 묘 건축과 벽화는 참고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요 문화 형성기의 상황을 밝혀 주리라 기대되어왔다. 바오산 묘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바오산 묘의 벽화가 당말 유행하던 회화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거란족의 한화 과정으로 해석한 것이고¹¹ 둘째는 바오산 묘 벽화에 등장하는 거란인 이미지나 內石室-外塼室의 이중 건축 구조를 통해 거란 고유문화의 면모를 살펴본 것이며,¹² 셋째는 벽화의 주제와 화풍을 중심으로 요 초기의 시각문화 형성 과정에서 한족 출신의 화가의 역할을 조명한 것이다.¹³ 그러나 대부분의 묘실 벽화 연구가 그렇듯, 바오산 묘 연구도 하나의 예시를 통해 요 문화의 특징이나 경향을 단정지으려 하거나 바오산 묘에 나타난 특정 주제의 벽화를 회화작품으로써 분석하였기 때문에, 바오산 묘의 형성을 당시 시대상황과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하였다.

바오산 묘는 거란 황족계 귀족의 무덤이며, 1, 2호 묘를 제외하고 동 시대 동일 지역 내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요대 특수 형태의 무덤이다. 이후의 요대 벽화 묘와 바오산 묘와의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면, 바오산 묘는 요 문화를 이루는 항구적 특성을 드러내는 유물이 아닌 특수 계층에서 선호되던 한정된 시대의 시각문화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바오산 묘를 구체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겠다.

Ⅲ. 바오산 묘 구조와 벽화 해석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바오산 묘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거란인의 한화 과정과 거란인 고유의 미술문화 형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의 묘실 구조와 벽화 내용 분석도 이 두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각각 북방이민족적인 요소나 한족의 문화적 요소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었다.

본 장에서는 민족적 논의에서 벗어나 동북아 미술문화 형성에서 요 초기 거란

¹¹ 대부분의 중국 발굴보고서가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¹² Tsao Hsingyuan, *From Appropriation to Possession: a Study of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Liao through Their Pictorial Art* (Stanford University Dissertation, 1996); Wu Hung ed., *Tenth-century China and Beyond: Art and Visual Culture in a Multi-centered Age* (Chicago: The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2012).

¹³ Wu Hung, 위의 책(2012), pp.100-125.

지배자의 역할과 상징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바오산 묘의 벽화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재해석에 적용될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오산 묘 벽화는 요 초기 황실 혹은 귀족 문화의 산물이라는 하나, 요 고유의 문화가 아닌 당 멸망 이후 중원과 북방 지대를 할거한 당 후기시대 지배자 집단의 문화로 본다. 이 시각은 바오산 묘의 특정 이미지를 두고 민족의식의 발로로 보는 종전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바오산 묘가 건립된 거란국 시대는 성숙한 단계의 사회를 증거하는 민족적 자의식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기 때문이다.¹⁴ 둘째, 바오산 묘를 당시 공유된 지배자 문화의 산물이며 일종의 소비 상품으로 본다. 즉, 북방 및 중원지역 상류계층 간의 문화 공유는 특별한 연구나 학습에 의한 결과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갖는 물질 소비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고분 미술 도상의 의미를 제작자나 주문자의 개인적 경험에 연관시켜 해석하였던 종전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다.¹⁵

다음으로 동시대 중원의 벽화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바오산 묘의 구조와 벽화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1. 공유된 교양: 요 문화와 중원문화

바오산 1, 2호 묘 내부의 벽화는 주제나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 확연히 唐色을 띠며, 이는 당시에 상류층 사이에 만연한 唐風 문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당 문화에 대한 선호는 비단 요 초기 사회만의 특징이라 볼 수 없는데, 당의 각종 제도와 문화적 요소는 당 멸망 이전부터 수많은 동아시아 왕조에서 모범으로 받아들여졌기

¹⁴ 거란의 자의식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역사의식의 성장은 요 聖宗(971~1031)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서병국, 「요제국 거란족의 한족 통치사: '한거(漢契)일체적중화사상'의 허구성 비판」, 『高句麗研究』29(2007), p.371.

¹⁵ 고분 벽화의 내용은 묘주 생전의 삶이 죽은 후에도 영속되기를 희망한다는 繼世의 측면에서 해석되어 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우홍은 일찍이 고분 미술의 탄생에 있어 창작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반영된다고 주장하였고 바오산 묘 벽화의 도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한 바 있으나, 이 모두 고분 벽화의 탄생을 제작자 혹은 후원자와의 단선적 관계 속에서 바라본 것이다. 우홍,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파주: 아가넷, 2003), pp.560~589; Wu Hung, 앞의 책(2012), pp.117~122; 이와 달리 정옌은 서역계 소그드인이 한문화계통의 상장 미술을 수용한 예로, 北周 康業墓 석침상의 도상을 해석하면서, 고분 미술 도상체계의 저작과 사용은 일개인이 아닌 특정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집단에 의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정옌, 서운경 역, 「北周 康業墓 석침상의 새로운 해석: 고분미술의 도상해석에 관한 新視野」, 『美術史論壇』28(2009), p.244.

때문이다. 당 멸망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독립한 사회의 핵심세력들에 의하여 당의 문화가 전승되었다. 그러나 선비, 돌궐, 소그드인 등 다양한 민족을 포섭했던 당 사회 내부에서도 거란족의 존재는 미미하였기에, 당 멸망 직후에는, 중국 내지에 대한 야망을 키울 만큼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¹⁶ 부족 간 불화의 해소와 단합이 더욱 시급했던 거란족들에게 당의 문화가 언제부터 또 얼마큼 인식이 되었을지 확실치 않다. 최소한 오대가 성립될 무렵에는 당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중원 왕조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당 문화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¹⁷

오대가 완전히 끝나는 遼 世宗(918~951) 시기까지의 遼史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는 북방의 오랑캐 신분을 벗어나 중원의 통치자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¹⁸ 자연스럽게 여러 오대의 왕조와 함께 당 말의 문화를 공유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요 초기의 오대 왕조와 요의 관계는 단순히 경쟁관계나 동맹관계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였다.²⁰ 그들은 혼란기에 새 시대 건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공동체에

16 거란의 통치자인 可汗은 당에 조공을 하고 황제로부터 李氏 성을 하사 받은 바 있다. 遙輦氏의 首君인 迪輦祖리는 당에 항복하고 안녹산의 난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그를 계기로 당으로부터 이회수(李懷秀)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 이는 오대 여러 왕조의 창시자인 당의 절도사들과 비슷한 행보이다. 『遼史』卷63, 表第1, 「世表」.

17 오대십국을 일으킨 대부분의 인물이 당 말의 혼란을 다스린 군벌세력 즉, 변방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것과 같이 당 말의 사회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넘어 당의 후계자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행보였던 것이다. 더불어 각 왕조의 창건자는 스스로를 당의 후계자임을 천명하였다. 예를 들면, 後梁(907~923)은 朱全忠(852~912)이 당의 마지막 황제인 哀帝(892~908)로부터 신양을 받아 세운 왕조이며, 後唐(923~936)은 이름에서도 보이듯, 李存勖(885~926)이 당의 계승자를 자칭하여 세운 왕조이다.

18 오대십국의 많은 왕조가 요에 대하여 스스로를 아들, 조카, 혹은 신하라 칭하였다. 일례로 요 황제의 조카를 칭하였던 十國의 왕조인 北漢(951~979)은 오대 後周(951~960)를 계승했으나, 그만큼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요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였다. 북한이 설립되고 멸망할 때까지의 『遼史』의 기록을 보면, 요 세종조(947~951)부터 경종조(969~982)까지 북한이 조공을 보내고, 송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원군을 요청하며, 황실 내 경조사사를 보고하는 등의 기록이 대략 65회 나온다. 『遼史』卷5, 本紀第5, 「世宗」; 卷6,7, 本紀第6,7 「穆宗」上, 下; 卷8,9, 本紀第8,9 「景宗」上, 下.

19 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당의 여러 제도(행정제도, 관직명, 황실의례 등)를 받아들였다. Karl A. Wittfogel,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

20 『遼史』에 의하면 耶律倍가 後唐으로 간 것은 明宗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명종은 선대왕 莊宗의 후비인 河氏를 야율배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하여 야율배와 후당 황실은 준 가족관계로 맺어진다. 또한 야율배가 38세의 나이로 후당에서 시해되었을 때, 명종의 사위이며 後晉 高祖 石敬瑭(892~942)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遼史』卷72, 列傳第2, 「宗室」; 야율아보기는 일찍이 後唐(923~936)의 李克用(856~908)과 後梁(907~923) 협공에 합의하고 형제관계를 맺었다. 『舊五代史』, 「外國列傳」卷1, 〈契丹〉; 後晉(936~946)의 高祖 石敬瑭(892~942)은 연운16주를 요 태종에 할양하고 스스로 稱臣하며 요의 황제를 극진히 받들었다. 『舊五代史』, 「外國列傳」卷1, 契丹.

가까웠으며, 그만큼 시대적, 정서적 동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왕조 설립 이전부터 節度使 신분이었던 통치자들은 일찍이 요와 맹약을 맺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요의 군사력은 반드시 영토와 세력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각 왕조 내외부의 다양한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였다.²¹ 요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도 처음부터 오대 사회의 균형을 깨고 중원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본거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적 문화적 배경이 요로 하여금 중원 통치를 주저하게 하였던 것 같다.²² 대신 오대 왕조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거란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였고, 중원의 문화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²³

이처럼 특수한 시대를 살았던 거란족의 한족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 또는 한화 정도는 중국 근세사를 접하는 여타의 이민족 왕조와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요 초기 문화 형성의 특수성은 요의 중원 복속지 및 복속민 지배 정책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이민족 왕조가 중원으로 천도하면서 한화의 加速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요는 끝까지 내지의 上京臨潢府(현 네이멍구 상두[商都] 부근)를 중심으로 삼고 거란족과 북방계 유목민족을 아울러 그들이 유목민의 습속을 유지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거란의 중원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의한 것이 아닌, 발해를 포함한 농경민의 문화와 유목민족의 생활방식의 상이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목민과 농경민의 공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⁴ 목축업과 농업 간의 경제 이득 차이로 농경문화가 북방으로 확대되면서 오래지 않아 농업 일원체제의 생활방식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이원적 통치체제의 시행은 요 건설 당시 거란 지배자에게 한화 의지보다는 사회 유지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음을 드러낸다.

²¹ 후당의 莊宗(885~926)이 반란군에 의해 사망하자, 후당의 사신이 야율아보기에게 장종의 喪事를 알리고 明宗(926~933)의 즉위를 고하였다. 이에 야율아보기가 장종을 아들로 칭하며 자신이 제 때 군사를 보내 아들을 구하지 못했음을 통탄하였고, 후계에 관해 자신과 상의 없이 왜 명종이 즉위에 올랐는가에 대해서 사신을 힐문하였다. 『舊五代史』, 「外國列傳」卷1, 契丹.

²² 일례로 요 太宗(914~947)조차도 後晉을 정벌하고 汴州(현 開封)를 점수한 뒤, 변주의 왕성에 거하며 한족의 예를 받고 그 성태함에 감탄하고 기뻐하였지만, 사실상 낯선 환경을 불편해하며 속히 요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舊五代史』, 「外國列傳」卷1, 契丹.

²³ 중원으로 이주한 대표적인 요의 상류층 인물은 야율아보기의 長子인 耶律倍(900~937)였다. 그가 정치적인 압박으로 거란땅을 떠나 후당에 의탁하자, 明宗(867~933)이 그에게 李氏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贊華라고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2, 舊五代史·新五代史 外國傳 譯註』(동북아역사재단, 2011), p.61.

²⁴ 서병국, 앞의 글(2007), p.360.

거란족에 봉사한 한족 출신의 畫工의 역할도 눈여겨볼 만하다. 요 초에 상경과 인근으로 이주, 활동한 중원 내지의 한족을 단순히 전쟁 포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요 성립 시에 중원 내지인과 그들의 문화는 거란에 있어서 민족적 열등의식을 느끼게 한 요인이기보다는 북방의 낙후된 체제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받아들여진 면이 크기 때문이다.²⁵ 중원 내지 한족의 북방 이동은 강압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자발성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 요에 복속된 燕雲 지역의 한족들은 요의 비호 아래 그들의 본거지에서 고유의 생활방식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였으며, 사민정책에 의해 요의 내지로 이동된 한족도 요에 기여한 바에 따라 대우를 받았고, 경우에 따라 본 거주지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이와 같이 요와 오대 왕조와의 관계, 한족 문화에 대한 태도, 거란족 지배층과 한족 출신 화공의 새로운 후원 관계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오산묘 벽화를 해석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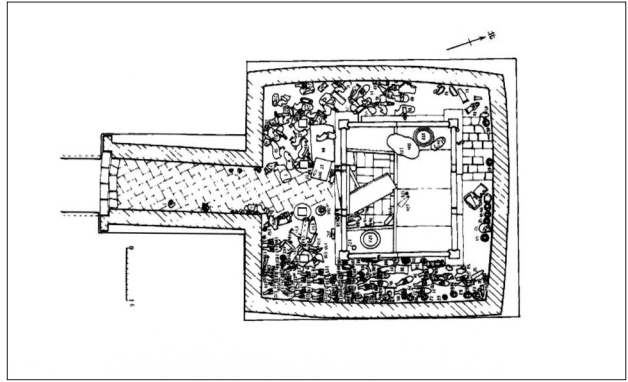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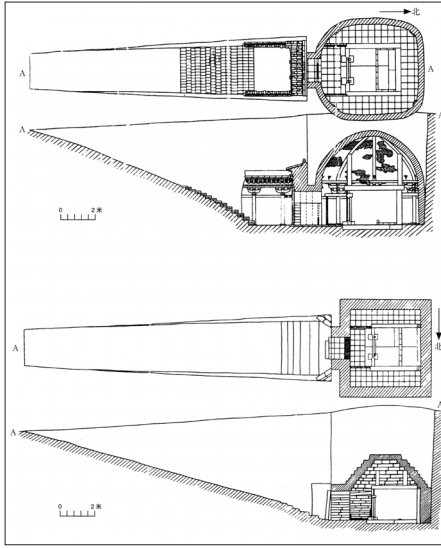
2. 바오산묘의 구조와 중원문화

바오산 1호 묘와 2호 묘의 구조는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 거의 같으며, 전 후시기의 중원 및 북방지역 벽화 묘의 구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몇가지 독특한 점을 보인다. 첫째, 지면에서 사선으로 파 들어간 묘도 끝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끝으로 묘문 앞에 門庭으로 불리는 현관이 있으며 묘문을 지나면 짧은 통로를 거쳐 묘실 내로 진입하게 되어있다. 둘째, 방형 혹은 방형에 가까운 원형의 평면 구조를 갖는 단실묘로서 내부에는 중심에서 후면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 혹은 후면(북면)에 관 혹은 시신을 안치할 별도의 석실이 설치되어 있다²⁷. 전축 단실묘의 형태는 漢代에 등장하여, 동한 시기를 전후로 중국의 동북과 서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일반적인 묘실 구조로 유행하였으므로²⁷ 전혀 새로운 구조라 볼 수 없지만, 묘실 북면에 시신을 안치하는 예는 당의 중심지인 섬서 일대에서는

²⁵ 특히 중원지역에 발달한 여러 기물의 생산시설은 요가 중원 땅을 점령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안귀숙,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의 영향」, 『梨花史學研究』40(2010. 6), p.122.

²⁶ 평민들은 요 치세 하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대다수의 한족은 요의 멸망을 거란족보다 더욱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서병국, 앞의 글(2007), p.374.

²⁷ 한의 다실묘 전통을 간소화한 단실의 전축분은 중원지역에서는 서진시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제도를 북위가 받아들여 제도화 한 뒤 후속 왕조에 전해주었다. Mary Fong, "Antecedents of Sui-Tang Practices in Shaanxi," *Artibus Asiae*, 51:3/4(1991), pp.147-198.



1 寶山1호묘(上) 2호묘(下) 평 단면도

2 山西大同市北魏宋紹祖墓 (M5) 묘실 평면도

나타나지 않는 북방지역 양식으로 본다.²⁸ 셋째, 천장은穹隆形(혹은 돔(dome)형)이며 석실과 돔 천장 사이는 석실에서 뻗어 올라간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다.

묘실 구조를 근거로, 바오산 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추측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바오산 묘 구조에서 가장 독특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묘실 내 石室(혹은 石房)의 기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바오산 묘의 구조적 특징을 요 초기의 당 문화로 대변되는 중원문화의 공유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면, 비슷한 구조의 고분이 唐代나 五代에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신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房形의 石槨을 제작한 예는 오히려 5~6세기 위진남북조 시기 유물에서 다소간 찾아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山西省大同에서 발견된 尉遲定州墓와 宋紹祖墓를 들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이 석곽들로부터 바오산 묘 구조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가? 만약 위진남북조 시기의 묘가 바오산 묘의 원형이라면 왜 5세기가 지나서야 네이멍구 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구조의 묘가 다시금 출현하게 되는가? 우홍(巫鴻)은 그 이유를 석곽이 발견된 묘의 주인인 선비족과 바오산 묘의 주인인 거란족의 민족적, 혈통적 연결성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²⁸ Wu Hung, 앞의 책(2012), p.104.

²⁹ 「山西大同陽高北魏尉遲定州墓發掘簡報」, 『文物』12(2011), pp.4-12, 51; 「大同市北魏宋紹祖墓發掘簡報」, 『文物』7(2001), pp.19-39.



3

요 상경 祖陵 부근 石房
內蒙古 赤峰 林西縣

즉, 바오산 묘의 석실 건축을 거란인들이 자신의 조상을 北魏(386~534)를 건설한 선비족으로 인식하면서, 석실에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선비족의 상장풍습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우홍은 위진 남북조 시대 석곽 연구에서, 석곽의 기원이 묘주인들의 이민족적 정체성과 관련 있을 것임을 추측한 바 있다.³¹ 일반적으로 중원의 한족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 石葬具를 이민족이 한족

문화에 적응하면서 발생한 상이한 문화요소의 융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거란족이 5세기 전 선비족의 상장례에 정통하였을지 의문이며, 유목민족적 특성이 아닌 이민족의 한화 과정의 산물을 先祖의 고유문화로 이해하였을 것이란 추측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후, 이와 같은 구조의 무덤이 거의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과연 석실의 의미가 거란인에게 그토록 지대하였을지 의문이다.

바오산 묘 건축 구조의 형성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 추론하기보다 석실의 제작을 지역 관습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바오산 묘 구조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 석실묘 제작 관습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석실의 의미를 요 고유의 민족문화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면에 독립형으로 세워진 석실로 요의 祖州³²에서 발견된 것이 대표적이다³³. 특별한 명칭이 없는 이 석조 구조물은 7장의 판석으로 조립된 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재료나 구성에 있어서 바오산 묘에서 발견된 석실과 유사하다. 이 석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 무엇에 쓰이던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여

³⁰ 巫鴻, 李清泉, 『寶山遼墓: 材料與釋讀』(上海: 上海書畫出版社, 2013), pp.15-19; 거란인 스스로 선비가 자신의 조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遼史』卷 63, 表 第1「世表」; 『北史』와 『魏書』에도 석실 조상제사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張松柏, 馮雷, 『祖州石室探索』, 『內蒙古東部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1991), p.131.

³¹ Wu Hung, "A Case of Cultural Interaction: House-shaped Sarcophagi of the Northern Dynasties," *Orientations*, 34(2002. 5), pp. 34-41.

³² 現 內蒙古 赤峰市 林西縣 소재. 遼史에 따르면 요의 상등 주로 절도사를 두었으며, 태조가 가을 사냥지로 이용하면서 성을 쌓고 조주라 이름 붙였다. 요의 태조 야율아보기의 4대 선조의 출생지이며, 요 태조의 능지인 祖陵이 조주의 영역 내에 있다. 『遼史』卷 37, 志 第 7「地理志」1.

러 학자들은 이것을 거란족 고유의 조상제사 유적으로 보고 있다.³³ 그러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거란족의 상장체계 내에서 이 석실의 재료나 구조가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여, 그 제작과 사용은 지역적 관습에 의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문화적, 지리적 맥락에서 석실의 형성을 살펴보면, 바오산 묘의 석실 구조는 지역적 관습과 외래적 요소, 즉 중원적 요소가 혼재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토착적, 북방이민족적 요소는 무덤 내부에 석실 구조를 도입한 것이며, 중원적 요소는 死者埋葬 풍습 그 자체와 돔 천장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묘실의 전반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용은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는 초기 거란 귀족이 자신들의 지식수준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수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비슷한 논지에서 리칭취엔(李清泉)은 거란 황족과 귀족이 완전히 이국적인 한족의 상장제도를 공유함에 있어, 무덤 내 제사 공간 즉, 사당을 석실로 대체, 받아들였으며, 이후 사회 전반에 미친 불교의 영향으로 무덤 내 석실이 佛堂 혹은 佛具의 형태 혹은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변화됨을 지적한 바 있다.³⁵

바오산 묘 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지역요소의 혼재는 거란인의 한화과정도의 식적 문화융합도 아닌, 거란인의 독특한 중원문화의 공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는 중원의 내지로 중심지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배층이 중원 문화를 접할 때에는 노획 혹은貢物로 유입된 여러 중원의 물자나 중원 지역에서 이주시킨 장인의 활동 등을 통하였다.³⁶ 그 근거로 요가 오대 국가와의 전쟁 및 오대 국가 사이의

³³ Nancy S. Steinhardt, *Liao archite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pp.247-250; 巫鴻, 李清泉, 앞의 책(2013), pp.101-111.

³⁴ 스타인하트(Steinhardt)는 조주 발견의 석실이 요의 황실의 제사와 연관 깊은 유적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네이멍구 Korban-torghai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석실 유적은 그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맥락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석실 유물을 반드시 거란족과 관련지을 수는 없으며, 다른 시대 다른 삶을 살았던 민족의 유물일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석실 건축에서 민족성이 아닌 지역성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Nancy S. Steinhardt, 위의 책(1997), p.249.

³⁵ 요 사회의 불교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唐代 유행하던 불교식 장례법도 참고했을 것으로 본다. 巫鴻, 李清泉, 앞의 책(2013), pp.114-116; 우홍도 11세기 전후 요녕성 소재의 요 귀족 耿氏의 가족 묘군에서 발견된 묘 내에 석실이 설치된 것, 또 천정과 석실을 연결하는 기둥이 사라진 것에 대해 무덤 내 석실 구조가 거란식 묘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같은 책(2013), pp.21-23.

³⁶ 자오싱위엔은 요 초기 거란인이 중원문화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래 문화를 완벽히 소화하여 자의적으로 변용하지 못하였고, 단지 거란문화와의 혼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한다. Tsao Hsingyuan, 앞의 책(1996) p.65.



4
바오산 2호 묘 묘실
천장 벽화

전쟁을 중재하기 위한 원정에서 중원의 북방 지역, 산시 성과 허베이 성의 수많은 백성들을 요의 내지로 이주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요 초기 문화가 대체로 산시 성과 허베이 성의 문화와 유사성을 띠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외래의 중원 문화는 요 내지에서 필연적으로 현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주 장인과 더불어 활동한 북방계 장인들에 의해서 중원적 요소의 요 문화 내 정착이 가능했으리라 본다.³⁷ 무덤의

건축은 벽화와는 달리 재료에 대한 이해와 엄정한 기술 적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산물이기에 재료의 수급이나 지리 정보 등에 대한 입수에 있어 현지 기술자들의 협력 없이 외지의 장인들이 쉽게 중원지역의 고분 건축 양식을 요의 내지로 가져오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오산 묘 구조의 특이성은 무덤 건축에 참여한 장인들의 다양한 출신지를 암시하며, 요의 내지로의 중원문화의 유입 과정에 대해서 재고찰하는 데 근거가 된다. 무덤 건축 참여 장인의 출신지 차이는 바오산 1호 묘와 2호 묘의 건축 부재와 천장 구조의 차이로 드러난다. 바오산 1호 묘 묘실은 전축 궁륭정이며 2호 묘 묘실은 석축 抹角操井이다. 전축 궁륭정은 전통적으로 중원의 양식이지만, 석축의 말각조정은 서북아 혹은 동북아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돔 형태의 천장을 구현한 것이다. 바오산 1호 묘에 전축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의 돔 건축을 축조할 수 있었지만, 구조적 안정을 위해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기둥으로 석실과 돔 천장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바오산 2호 묘는 그 지역에서 익숙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였기에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1호 묘보다 안정되어 더 적은 수의 기둥이 사용된 것 같다. 더불어 바오산 2호묘의 천장부 연화 장식은 이 고분이 축조될 때 북방지역의 기술과 문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⁴. 천장 頂

³⁷ 이에 덧붙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오산 묘의 장인들이 외지 출신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의사결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묘주 혹은 주문자라고 생각했을 뿐, 현지 장인 혹은 북방계 장인의 존재는 간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 출신의 장인들이 비단 중원 지역에서만 온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 북쪽지 출신의 장인들이 요의 중심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 태조, 태종, 성종 때 발해인 47만 명 정도가 이주했던 기록을 통해 추측하면 북방계 장인 중에 발해인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안귀숙, 앞의 글(2010), pp.122-123.

部를 연화 장식은 이미 3~4세기 중국 서북지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³⁸ 동북지역 및 고구려에서 유행한 바 있다. 바오산 묘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연화문 장식은 10세기에도 중원을 통하지 않는 동-서 연결로 상의 독자적 문화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⁹

3. 바오산묘 벽화의 중원문화적 특성

바오산 1호 묘와 2호 묘는 벽화의 내용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벽화의 구성과 특징에 있어서 공통점을 공유한다. 벽화는 주로 묘실 벽과 석실 벽에 존재하며, 건축 장식, 기물, 인물, 고사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바오산 묘 벽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묘실 공간에 따라 분류하고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묘실 벽면의 방목구조에 따라 벽화 전체를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누고 각 단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⁴⁰ 바오산 1호 묘의 경우 석실과 묘실 사이의 공간이 위치상 다실묘의 耳室과 回廊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벽화의 내용을 묘실의 공간적 의미와 결부시켜 해석하기도 하였다.⁴¹ 본 장에서는 바오산 묘 벽화에 표현된 인물과 기물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되, 개별적 주제 및 도상 해석은 생략한다. 대신, 이러한 이미지를 “중원지역 양식의 벽화고분”이라는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바라보고, 묘 내지에서 중원지역 벽화고분의 양식의 유입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5
바오산 1호 묘 묘실 남벽 묘문 동측(左)과 서측(右) 시자도

1) 1호 묘

바오산 1호 묘의 벽화를 석실벽과 묘실벽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는 묘주인의

³⁸ 둔황 지역 서진시기 佛爺廟灣 고분 133호 천장의 연화문 등 참조. 戴春陽, 『敦煌佛爺廟灣西晉畫像磚墓』(文物出版社, 1998).

³⁹ 북방 이민족을 통한 중북 서북지역과 고구려와의 직접 교류를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을 참조. 김진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美術史學研究』258(2008), pp.37-74.

⁴⁰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處, 앞의 글(1998), pp.73-95.

⁴¹ Wu Hung, 앞의 책(2012), pp.102-10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阿魯科爾沁旗文物管理處, 위의 글(1998), p.75.



6
바오산 1호 묘 묘실 서벽
시자 행렬도

사적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싼 생활환경을 나타낸다. 석실 내부 벽화의 현실적 인물 표현은 남녀 시종 둘뿐이며, 대부분의 인물은 묘실 벽에 표현되어 있다.

석실 외부, 즉 묘실 벽화의 인물 이미지를 우선 살펴보면, 원형에 가까운 방형의 묘실 벽체가 중앙의 석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벽면을 따라서 인물들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묘문이 위치하는 남벽에는 가운데 위치한 문을 중심으로 양 옆에 각 일 인의 시종이 서있다⁴⁵. 동편에 있는

시종은 매부리코에 짧은 두발을 하고 있으며 흑색 幘頭를 쓰고 있다. 갓이 둥글고 소매가 좁으며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紫褐色의 長袍를 입고 叉手를 하고 있는데 옷감에 화려한 무늬가 장식되어 있어, 시종 중 지위가 높은 인물인 듯 보인다. 묘문 건너편의 단발머리 시종은 그에 비해 무늬가 없는 수수한 옷을 입고 역시 차수를 하고 있는데,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인물을 얼굴 이목구비 표현상의 차이로 여성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복식 면에서는 여타의 남성 시종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⁴²

묘문이 있는 남벽을 중심으로 인물들은 동쪽으로 들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쪽으로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동벽에는 하나의 시종이 세 마리의 말을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 마리의 말은 중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시종이 끄는 가장 앞쪽의 적갈색 말은 묘주의 탈것임을 암시하듯 금박을 입힌 화려한 마구로 장식되어 있다. 말을 끄는 시종의 앞으로 산양 한 마리와 개 한 마리가 북벽에 그려진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참이다. 북벽의 문 원편으로 다양한 그릇이 놓인 탁자가 있고, 탁자를 지나면 서벽의 그림이 시작되는데, 서벽에는 묘주인의 시종을 들기 위해 대기하는 남녀 시종 일곱이 줄을 지어 서있다. 모두 무늬가 없고 담채로 표현된 수수한 團領의 長袍를 걸치고 단발머리 혹은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있어 남녀가 섞여 있는 듯 보이나, 성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⁴⁶.

석실은 외벽과 내벽에 모두 인물이 그려져 있다. 석실 남벽의 외벽에는 출입문

⁴²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阿魯科尔沁旗文物管理處, 위의 글(1998), p.77; 보고서의 의견과 달리 모두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석실 입구가 아닌 묘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여성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시종이 대기하고 있으며 인물 표현은 묘실 벽면의 인물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석실 내부로 들어가면 벽화 속 인물 표현의 풍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석실 출입문의 내벽으로 또 다른 남녀 시종이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데, 이들은 석실 밖의 시종들과는 달리 화려한 복식을 하고 있다. 또한 석실 밖의 인물들은 성별이 잘 구분되지 않는 일꾼 복장을 한 거란인 고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석실 내의 인물들은 같은 시종이라도 성별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는 세련된 복식을 하고 있다. 문 왼쪽의 남자 시종은 흑색 복두를 쓰고 흑색의 포를 걸쳤으며, 문 오른쪽의 여자 시종은 석실 밖의 여자 시종들과 달리 긴 머리를 곱게 빗어 늘어뜨리고 꽃무늬가 아름답게 장식된 흑색의 長袍를 입고 있는데 단령이 아닌 좌임의 깃을 하고 있으며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다⁷.



7
바오산 1호 묘 석실 내 남벽
남녀시종도

〈廳堂圖〉로 명명되는 석실의 북벽 벽화는 묘주인의 방을 묘사하고 있다⁸. 묘주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묘주인의 부유한 삶과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바닥에는 원형의 꽃무늬가 아름다운 깔개 위로 낮은 茶卓이 있고, 그 위로 盤, 箸, 碗 과 高足盞이 놓여있다. 다탁 옆으로 등이 높은 의자가 있는데 의자의 전면은 꽃과 새 무늬로 장식되어있다.⁴³ 의자 옆으로 拂塵이 놓여있고 뒤편으로 활과 화살이 보인다. 깔개 왼쪽 모서리에 정교하게 장식된 각종의 활과 활집, 화살, 보검 등 무기류가 놓여있다. 가구와 무기 등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화려함을 더한다.

석실의 동벽과 서벽에는 모두 고사인물도가 그려져 있는데, 벽화 속 인물들은 검은색 테두리 속 별도의 화면 내에 존재하고 있어, 현실세계의 시종들과 달리 가상의 세계 즉, 그림 속의 인물들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벽의 그림은 훼손 상태가 심해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발굴보고서 상에서 이 그림이 〈高逸圖〉로 명명된 것과 같이, 남아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위 혹은 나무 그루터기에 옷을 풀어헤치고 앉은 두 명의 인물로 판단컨대,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은둔한 高士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동벽의 그림은 서벽보다는 상태가

⁴³ 리칭취엔은 이것을 모직물의 장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巫鴻, 李清泉, 앞의 책(2013), pp.105.



8

〈廳堂圖〉

바오산 1호 묘 석실 내 북벽
벽화

9

〈降眞圖〉

바오산 1호 묘 석실 내 동벽
벽화

나는 편이다. 그림의 좌측 상단에 매장시기를 알려주는 묵서와 〈降眞圖〉라는 畫題가 적혀있으며, 그림은 西王母가 漢武帝를 방문하여 承華殿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⁴⁴. 한무제와 서왕모, 및 天女들은 전형적인 唐風의 머리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 2호 묘

바오산 2호 묘의 벽화는 기본적으로 1호 묘 벽화와 비슷한 구성을 보이는데, 묘실 벽화는 훼손이 심해 倣木構造物과 천장부의 벽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어, 석실 벽화만이 분석 가능하다. 단 석실 내 벽화의 보존상태가 1호 묘보다 양호하여 당시 회화 예술과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석실의 외부에는 출입문을 사이에 둔 두 남자 시종의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의 시종은 황색 복두를 착용했으며, 왼쪽의 시종은 거란족 특유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 출입문 위쪽으로 火焰寶珠文이 보이며, 이는 묘실 천장의 연화문과 더불어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석실 내부로 들어가면, 역시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여종이 서 있다¹⁰. 1호 묘 석실 내부에 남 시종과 여 시종이 지키고 있었던 것과 달리 2호 묘는 여 시종만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2호 묘의 묘주가 여성임을 고려하여 內室에 남성을 두지

⁴⁴ 한무제가 불사를 꿈꾸며 서왕모가 강림하기를 기원하였고 서왕모가 한무제의 정성에 감복하여 불사약인 복숭아를 선물로 주었다. 더불어 한무제가 서왕모와 시녀 上元夫人과 대면하면서 신선의 도에 대해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이 때 〈五嶽眞形圖〉와 『靈光生經』 등 진귀한 서적을 얻었다고 한다. 『漢武帝內傳』.



얇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시종 중 왼쪽은 젊은 여성이며 오른쪽은 중년의 여성인데, 각기 다른 얼굴형과 주름, 입술 등의 모습을 통해 특정 나이대의 여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중년 여성은 본래 젊은 여성으로 그려졌다가 이후에 중년 여성으로 고쳐 그린 듯, 그림 아래 또 다른 젊은 여성의 밑그림이 비추어 보인다. 석실 문 맞은편인 서벽은 훼손이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지만 남아있는 흔적으로 판단컨대 모란과 새, 풀벌레 등을 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2호 묘 석실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벽화는 바로 북벽과 남벽의 故事人物圖이다. 남벽의 그림은 〈織錦圖〉로 동진시기의 蘇若蘭의 고사를 묘사한 그림이며^{11, 45} 북벽의 그림은 〈誦經圖〉로 양귀비가 앵무새 雪衣女(혹은 娘)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고사를 표현한 것이다^{12, 46}.

소약란 고사를 묘사한 남벽 벽화는 바닥과 하늘의 경계가 모호하고, 2열중대로 걸어가는 여성 인물들 사이로 파초와 대나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활엽수의 나무가 드문드문 그려져 있다. 주인공 소씨를 위시한 여인들의 대열 앞에는 소씨가 그의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할 使者가 공손히 대기하고 있다. 인물은 물론 생동감 없이 평면적으로 그려졌으며,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달리 하고 있어 아직 고대적 회화 표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약란 및 시

10

바오산 2호 묘 석실 내
동벽 묘문 남측 시녀도

11

〈織錦圖〉

바오산 2호 묘 석실 내 남벽

⁴⁵ 蘇若蘭은 4세기 前秦 苻堅 때 사람으로 安南將軍 竇滔의 처이다. 두도가 사막지역으로 부임해 가자 소씨가 그를 그리워하며 비단을 짜서 迴文詩를 지어 보냈다. 『晉書』列傳, 竇滔妻蘇氏.

⁴⁶ 『明皇雜錄』에 따르면, 唐 玄宗 때 嶺南에서 진상한 앵무새를 궁중에 두고 길러 길이 매우 잘 들어 사람의 말을 다 깨쳤는데, 이름을 '雪衣娘'이라 하였다. 하루는 귀비의 화장대 위에 날아와 앉으며 '새매에게 덮치기 당하는 꿈을 꾸었다' 하였다. 귀비가 般若心經을 가르쳐 주어 지성으로 持誦했다. 그 뒤에 데리고 苑中에 나갔다가 과연 몸이 사나운 새에게 죽음을 당하자 무덤까지 만들어 주었다. 『戒庵老人漫筆』.



12

〈誦經圖〉

바오산 2호 묘 석실 내 북벽

녀들은 복식 표현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얼굴은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어 개성이 없다. 그러나 필치가 세밀하고 색채의 사용이 능숙한 것을 볼 때, 화공은 이러한 벽화 작업을 오래도록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장면에 나타난 파초와 대나무, 활엽수는 남방의 전형적인 식물로 당시 여러 금속, 도자 공예품에서도 유행하던 장식 모티프였다.⁴⁷ 이에 관하여 뤼스핑(羅世平)은 당대에 화본이 유행하였던 사실을 언급하면

서, 중원 지방에서 유행하던 도상이 화본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전해진 도상이 고분벽화로 재구성되어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⁴⁸

북벽의 벽화는 책상에 앉아 경전을 읽어가며 앵무새를 가르치고 있는 양귀비와 시중을 드는 시자와 시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종려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등 남방계의 여러 식물들이 눈에 띈다. 이 도상은 우위꾸웨이(吳玉貴)에 의하여 문학적 전거를 추측하는 연구가 시도된 이후,⁴⁹ 뤼스핑 등의 학자들에 의해 唐代 동일 주제를 다룬 그림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상과 유행 문학과 의 관련성이 더욱 확실해졌다.⁵⁰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의 도상은 『明皇雜錄』에 수록된 양귀비의 전설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宣和畫譜』 목록에 張萱과 周昉이 동일한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었음을 보면 이 주제의 그림은 당대에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⁵¹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바오산 1, 2호 묘의 벽화는 요 상류층과 당말 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요와 당말 문화로 대표되는 중원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원문화가 요 문화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거란의 고유문화는 어떻게 유지되어 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거란인의 한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호기심과 동경을 전제한

⁴⁷ 안귀숙, 앞의 글(2010), pp.124-128.

⁴⁸ 뤼스핑, 김원경 역, 「遼代 墓室壁畫의 발굴과 연구」, 『美術史論壇』19(2004, 12), p.107.

⁴⁹ 吳玉貴, 「內蒙古赤峰寶山遼墓壁畫“誦經圖”略考」, 『文物』2(1999), pp.81-83.

⁵⁰ Wu Hung, 앞의 책(2012), p.115; 羅世平, 「織錦迴文: 寶山遼墓壁畫與唐畫的對讀」, 『書畫藝術學刊』1(2006), pp.15-23.

⁵¹ 『宣和畫譜』에 실린 〈誦經圖〉 관련 화목은 다음과 같다: 〈寫太眞教鸚鵡〉, 〈妃子教鸚鵡圖〉.

다. 일례로 바오산 묘와 중원 문화 관계를 조망할 때 중심이 되어왔던 벽화는 1호 묘의 동, 서벽, 2호 묘의 남, 북벽 벽화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네 폭의 그림 모두 당 말에 유행하던 고사도류의 회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바오산 묘 벽화에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원 문화의 영향으로 거란 귀족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도교적 永生觀(1호 묘 벽화)의 표현이나, 벽화 제작자인 한족 출신의 화가의 개인적 감정 - 고향땅에 대한 그리움 - 을 풀어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호 묘 남벽벽화).⁵²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遼史 등의 기록과 유적들로 판단컨대, 다른 이민족 왕조와는 달리 거란은 상류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중원문화를 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존의 해석이 과연 타당하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달리,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벽화의 구성 측면에서 일방적 문화전파가 아닌 문화공유 차원의 증거로써 바오산 묘 벽화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묘실벽화에서 중원적 요소의 공유는, 벽화 이미지의 주제나 양식의 차원이 아닌, 벽화를 통해 표현한 묘실의 시·공간의 의미 이해에 달려있다고 본다. 묘 벽화는 묘 건축과 함께 하나의 거대 장묘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벽화의 양식이나 내용 등은 제작지 환경이나 장인의 기술 및 정보력에 따라 대체, 변화될 수 있으나 무덤 내부 공간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그것을 드러내는 시각적인 요소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온 장의 사상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 제도이기에 제작자가 자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 흥이 중국 전시대의 장묘예술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불변의 구성요소 - 공간성, 물질성, 시간성 - 을 추출해 내었듯,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묘실 공간의 의미와 의미 구성은 최소한 한 시대 내에서 변화 없이 공유되는 항구적 속성을 지닌다.⁵³

벽화 일부의 도상적, 양식적 해석이 아닌, 벽화가 이루어내는 묘실 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바오산 묘와 대표적 중원 상류층의 무덤인 오대 王處直墓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두 묘의 벽화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비슷하다. 바오산 묘는 다실묘 구조인 왕처직 묘와는 근본적으로 묘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묘의 벽화

⁵² Tsao Hsingyuan, 앞의 책(1996), pp.75-56; Wu Hung, 앞의 책(2012), pp.117-122.

⁵³ Wu Hu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 Understanding Chinese Tomb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⁵⁴ 河北省文物研究所, 保定市文物管理處, 『五代王處直墓』(北京: 文物出版社, 1998); 왕처직(王處直, 863~923)은 하북성을 근거로 당말부터 후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조를 섬긴 제후이자 오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 권력자이므로 그의 무덤은 오대 중원 상층계급 묘의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 태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로 요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新五代史』卷72, 「四夷附錄」第1.



13
王處直墓 東耳室 東壁 벽화
五代 10세기
河北省 曲陽縣

프로그램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술했듯, 묘실 건축은 재료 수급과 지역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원의 유행형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바오산 묘에서도 제작 여건에 맞춰 중원 양식의 무덤에서 핵심이 되는 공간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하고 그 공간에 벽화를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근거로, 전·후실 및 兩耳室로 이루어진 왕처직 묘와 비교해보면, 남성 묘주의 방과 여성 묘주의 방을 묘사한 양쪽의 이실이 각각 바오산 1,2

호 묘에서는 석실 공간으로 치환된 듯 보인다¹³. 중원식 묘제에서 전실과 후실을 각각 바오산 묘 석실 외, 내부 공간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중요성이 강조된 이실 공간을 바오산 묘에서 主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왕처직 묘와 바오산 묘에서 전통적 개념의 후실이 사라진 것은 무덤 공간에 대한 오대 및 요대인들만의 상장관념을 보여준다. 위진 시기 이후부터 묘실 공간은 소우주로서의 의미나 통치자로서의 死者의 공적 공간이나, 의례가 행해지는 사당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고, 묘주 사후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주적 순행 요소나, 신화적 이미지, 거마출행 등의 주제가 사라지고, 예복을 입은 신하로부터 조례를 받는 장면 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안락한 삶을 위한 보조적 인물과 도구들, 즉 시종과 시녀들이 대거 등장하며, 여러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다.

바오산 묘의 묘주들은 옛 무덤의 묘주와 같이 無性의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며 죽어서도 성별, 계급, 취향이 뚜렷한 인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묘주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현실적인 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왕처직 묘의 이실들이 각각 분리되어 바오산 묘 석실에 표현된 것이다. 왕처직 묘 東耳室에 표현된 床은 바오산 1호 묘에서는 깔개로, 각종 도구들은 묘주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었지만 방안을 꾸미는 기본적인 방식은 왕처직 묘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왕처직 묘 벽화에 보이는 산수도 병풍 그림은 방안에 설치된 ‘물건’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한데, 바오산 1호 묘에서도 석실 안의 두 고사인물도도 굽고 까만 프레임의 병풍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바오산 묘 벽화에 드러난 이미지 소비의 정치성

이 장에서는 바오산 묘가 요 초기 황족 및 귀족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요의 지배층이 외래 이미지로서의 바오산 묘와 벽화를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과 계급을 차별화하고 강화해 갔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바오산 묘에서 보이는 거란인의 모습은 이후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양식화되었는지, 이러한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거란을 인식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추적해 본다.

1. 이미지의 物化와 소비

바오산 묘는 이전 및 동시기에 유사한 사례 혹은 규모나 장식에 있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10세기 초의 희귀 사례임을 언급하였다. 비교 가능한 유물이 없어 발생과 사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수 없다면, 바오산 묘는 장례 관습의 산물이 아닌 한 시대의 현상이며, 특정 소비층의 욕망을 반영하는 물질문명의 시각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이미지의 소비는 이미지가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나 배경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이미지의 소비가 재료의 희소성이나 적용 기술의 수준 등, 卽物的, 直觀的 감상의 대상이 되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 내린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심오한 사상에 기반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물화의 과정을 통해 재화적, 상징적 가치를 갖는 소비품으로 탈바꿈되면서 내재적 가치와 본질적 의미는 그 이면으로 숨어버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技藝로서 이미지를 다루던 수많은 장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미지의 근원적 의미는 잊히고 형태표현만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⁵⁵

바오산 묘를 제작한 다수의 장인들이 중원지역에서 유입된 포로 혹은 이주민이었음을 상기하면, 그들과 함께 들어온 신기술과 이미지는 거란인에게 낯선 외래문화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그에 대한 거란 소비자들의 이해는 중원의 소비자, 즉 중원

⁵⁵ 이와 관련하여 우흥의 ‘병풍 이미지’에 관한 해석을 참고할 만하다. 북송과 금대에 서예병풍이 크게 유행했으며, 당시의 묘실벽화도 그러한 유행이 반영되어 묘주초상화에 서예병풍 이미지가 동반되었다. 그림으로 그려진 서예병풍 위에 쓰인 글씨는 전혀 읽을 수가 없는데, 이는 화가들은 글자의 가독성에 전혀 관심 없었으며 단지 서예병풍과 유행하는 글자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Wu Hung, *The Double Screen: Medium and Representation in Chinese Pain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177.

지역의 귀족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원지역의 지배계층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의 산물로 많은 이미지들이 거란 상류층에 의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겠으나, 묘실 건축과 부장품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장례와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바오산 묘를 제작한 장인들은 거란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벽화 묘에 담긴 중원 상류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지키면서도 요 내지의 주문자들도 직관적으로 무덤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 변형을 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형은 묘실의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風葬이나 鳥葬을 하던 거란인들에게는 시신 매장 자체가 낯선 방식이었기에, 토착 관습에서 외래 관습으로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매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매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시 석실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바오산 묘 구조가 이 석실로 인해 일반적인 중원의 단실묘 구조와 같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오대 왕치직 묘와의 비교를 통해, 바오산 묘의 석실 공간이 왕치직 묘의 耳室 공간과 대응된다고 밝힌 바 있다. 主室과 분리된 부차적 이실 공간이 묘실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는 데에, 묘실 공간 재구성을 위한 논리를 필요로 하게 되며, 그 논리는 중원의 문화의 거란식 이해를 대변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리칭취엔은 거란 귀족들의 불교 선호에 의하여 장례풍습이 점차 불교적 색채를 띠게 되는데, 바오산 묘의 장묘제도는 불교식은 아니지만 석실이 묘실 공간 내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眞身을 보존하는 특별한 장소 혹은 장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해석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석실이라는 이질적 존재가 묘실 구조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었는지를 지적한 데에 의미가 있다.

리칭취엔의 지적처럼 바오산 묘의 석실과 묘실은 聖所(혹은, 성물로 치환된 상류문화의 상징)와 그것을 둘러싼 보호벽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실제로 표현된 이미지에 의해서 이 두 공간이 위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인물들의 이미지로 볼 때 석실 내부 공간은 정적이고 석실 외부 공간은 동적이다. 내부에는 문 옆을 지키고 서 있는 시종의 모습 외에 인물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정적인 느낌이 강하며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와 달리, 외부의 공간은 반시계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물 표현이 동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차수례를 하고 엄숙하게 대기하는 시종들의 모습에서 성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느껴진다. 둘째, 벽화의 색채 차이가 뚜렷하다. 석실 내부의 공간은 인물들을 비롯하여 실내 공간 표현에 있어서 복잡한 직물의 문양, 진한 채색과 금박장식까지 더하여 화려한 데 비해 석실 외 공간의 시종들은 담채로 표현

⁵⁶ 巫鴻, 李清泉, 앞의 책(2013), pp.114-120.

된 수수한 옷을 입고 있으며 마구 장식에 약간에 금박이 더해진 것 외에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띤다. 의도된 효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석실 내부의 벽화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표현된 기물의 양적 차이가 현격하다. 석실 내부는 각종의 진기한 물건과 가구 및 그림들로 채워져 있는 반면, 석실 외부는 탁자와 그 위의 빈 그릇을 제외하고 일체의 기물을 찾아볼 수 없다.

석실과 석실 외부로 나뉜 공간에서 벽화 내용의 주제적, 양식적, 양적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공간에 머무는 인물의 중요도에 따른 위계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석실 내외부의 인물의 세부 표현을 비교해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같은 시종의 신분이라도 석실 내의 시종은 거란족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한족의 양식은 아니나, 석실 내부의 묘주를 모시는 시종들은 두발과 복식을 유달리 단정하게 정리하여 그들의 교양 수준을 드러내는 데 비하여, 석실 외부의 시종들은 다소 거친 듯한 거란족 고유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묘주 혹은 바오산 묘의 주문자가 스스로를 거란족 피지배계층과 분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바오산 묘는 물화된 상징으로서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묘실 건축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란 사회의 귀족들은 묘실 공간을 일반적인 사후 거주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듯하다. 대신 석실을 묘주 자신과 그의 사회적 신분, 교양 수준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그 외의 공간은 석실이 상징하는 묘주의 위상을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거란사회로 치환하여 요 사회 내외에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입지를 확인하고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2. 野蠻 이미지의 탄생

거란과 한족과의 관계 속에서 중원 한족의 문화만이 공유되고 요대 사회에 자리를 잡아간 것은 아니다. 거란 사회의 풍습과 이미지도 요와 중원의 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전 중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족의 문화와 대비되는 요 고유의 문화 형성과 확산은 송 설립 후 중원지역과의 단절에 기인한 바가 컸던 까닭에 요가 오대 왕조와 한문화를 공유할 때 함께 일어나지는 않았다. 또한 요의 문화요소가 한족에게 소개되고 받아들여지는 경로는 요가 한족의 문화를 접했던 방식과는 좀 달랐다. 요가 오대 이후 통일 왕조로 중원을 제패한 북송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존속하자, 한족 사이에 거란인과 그들이 세운 왕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거란적 요소가 한족 문화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족이 자신들의 시각문화에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거란적 요소는 거란족 특

유의 복식을 한 거란인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한족들은 이 거란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거란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여기고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한족 왕조의 위협이 되는 야만적이고 거친 북방이민족에 대한 자신들의 인상을 투영했다. 이렇게 거란족 이미지에 덧씌워진 북방이민족에 대한 한족의 감상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이후 여진족에 의해 북송이 멸망하고, 또 몽골이 중원을 차지한 후에도, 한족 왕조의 존폐에 영향을 미친 이민족은 모두 거란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⁵⁷

흥미로운 점은 거란족 이미지의 형성과 고착화가 북송의 한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미지 형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란족을 바라보는 거란 지배자들의 사고에서 기인하였다. 초기 거란인 이미지는 바오산 묘 벽화에도 등장하는데,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 요 초기 거란인 피지배층은 통치자로서의 교양을 갖춘 묘주 즉, 지배층과는 차별화되는 순종적이고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거란족의 이미지는 무덤 내에서는 계급적 위계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갔을지라도 초기 거란족 이미지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혹은 비하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무덤 벽화 속에서는 거란인들은 때론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던 것이다. 요대 묘 벽화에서 묘주 초상화가 그려지지 않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요 지배층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⁵⁸ 거란족 일반인들의 모습은 侍者 혹은 하인의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 벽화에 두루 표현되었다. 즉, 거란인은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강건한 민족의 모습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곧 거란인 이미지의 정형화로 연결된다.

이미지의 정형화 과정은 근육 및 골격, 복식, 두발 등의 표현을 양식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거란인 표현의 양식화 과정의 일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 벽화에서 거란인의 모습이 등장한 이른 예 중 하나인 바오산 묘 벽화의 거란인 모습은 북송 이후 회화에서 등장하는 야만인 이미지로서 거란족의 모습과 사뭇 다른데 두발 표현의 차이가 가장 크다. 바오산 묘 벽화에 보이는 초기 거란인의 두발은 단정한 단발머리이다. 특히 머리카락 끝을 唐 인물화의 모발 표현법에 따라 한 올 한 올 정성껏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이처럼 관찰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된 두발은 앞머리만 남기고 윗머리와 뒷머리를 모두 깎는 髡髮의 표현으로 단순화된다. 곤발의 거

⁵⁷ Robert A. Rorex, "Some Liao Tomb Murals and Images of Nomads in Chinese Paintings of the Wen-Chi Story," *Artibus Asiae*, 45:2(1984), pp.174-198.

⁵⁸ 묘주 초상화가 그려지지 않은 것은 남조 묘제의 영향을 받은 唐 이후 중원 묘제의 특징이다. Wu Hu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 Understanding Chinese Tomb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76.

란인은 요대 중기 이후 벽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⁵⁹ 요대 후기 벽화에서는 그나마 곤발도 세밀한 표현 없이 단지 까맣게 칠해진다^{도14}.

곤발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오랜 시간을 거쳐 수많은 화가들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거란인 이미지가 양식화되었다. 이렇게 양식화된 거란인의 이미지는 요대에 활동했던 거란족 및 한족 화가들에 의해서 이후 중원지역으로 전파되고 소개되었을 것이다.⁶⁰ 한인 묘로 알려진 허베이(河北省) 쉐



하(宣化)의 요묘 벽화를 보면, 이미 11~12세기 무렵에 거란인은 중원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양식화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15}. 비록 이 시대 화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어떠한 경로로 거란인의 이미지가 중원지역에까지 전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거란지역에서 활동하던 화가가 활동지를 옮기면서 이미지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리라 본다.⁶¹

여기서 의문은 자신의 민족의 고유한 모습을 이미지화한 이민족이 거란족이 처음이 아니며,⁶² 한족 왕조는 항상 이민족들의 위협에 시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거란인 이미지가 야만적 非漢系 인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본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거란인의 한족 문화에 대한 태도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한대의 匈奴 위진남북조 시대의 鮮卑 등, 역사상 한족의 왕

14

요慶陵 내 耶律弘世墓 묘도
동벽 거란사자도
1087년
內蒙古 赤峰 巴林右旗

⁵⁹ 요대 慶陵 벽화 참조. 齊曉光, 蓋誌勇, 叢艷雙, 「內蒙古赤峰寶山遼壁畫墓髮掘簡報」, 『文物』 1(1998. 1), p.80; 이에 관해 자오싱위엔은 요의 두발 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Tsao Hsingyuan, 앞의 책(1996), p.67.

⁶⁰ Linda C. Johnson, "The Wedding Ceremony for an Imperial Liao Princess. Wall Paintings from a Liao Dynasty Tomb in Jilin," *Artibus Asiae*, 44:2(1983), p.131.

⁶¹ 로렉스(Rorex)는 오대에 李贊華, 胡瑋 등 거란 주제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거란족의 이미지가 비한계 민족의 이미지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말한다. Robert A. Rorex, 앞의 글(1984), p.195.

⁶² 두발로써 민족성을 드러내는 이민족의 이미지는 북위시대의 무덤인 沙嶺壁畫古墳 M7 고분, 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 소그드인의 석장구에 보이는 소그드인과 돌궐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大同市考古究所, 「山西大同沙嶺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10(2006), p.97;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 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中央아시아研究』 15(2010), pp.327-350.



조를 굴복시킨 이민족이 많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북송 왕조의 문화를 부정하는 척했는지언정 실제로는 한족의 문화를 동경하였고, 정복을 통해 그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이와 달리 요는 처음으로 한족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민족의 왕조였다. 수도를 중원지역으로 천도하지도 않았고, 오대 중원의 여러 왕조에 사대하는 대신 형제관계를 맺으며 공생을 추구하였다. 이와 반대로 요의 형제국을 멸망시키고 통일 왕조를 이룬 宋에게 요는 잠재적 보복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요는 전연의 맹(澶淵之盟)을 맺고 매년 세폐를 바치는 북송과 정기적으로 사신을 주고 받으며 화목을 도모하였는데, 이 때 요로 파견된 북송의 사신들을 마치 死地로 쫓기는 사람들처럼 절망을 느꼈다고 한다.⁶³ 이와 같은 공포에 의하여 북송인들은 거란인을 야만인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정신성으로 대변되는 북송의 문화와 극명히 대비되는, 신체성이 강조된 거란인 시자의 이미지는 요에 대한 그들의 불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15

張文藻墓 남측 통로 동벽
시자도
요대
河北省 宣化

V. 맺음말

엘리트 한족 문화 중심으로 서술되는 중국문화사는 전반적으로 지리, 민족, 신분에 따른 이분법적 가치를 당연한 듯 내포한다. 그중 漢系와 비한계로 나뉘는 범주에서 비한족의 문화는 통상 한족의 문화의 하위에 놓였으며, 한족의 미술은 이민족 문화권에서 동경과 모방의 대상인 것처럼 서술되었다. 이러한 통념 아래 한화 과정에서 이민족들이 지켜온 민족적 요소들은 한족 미술의 현지화 과정으로 치부되거나, 이민족의 자의식 확립의 증거 등으로 확대 해석되기도 하였다.

상기의 ‘한화’ 논의는 문화 형성의 주체가 민족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바가 크다. 그러나 한족의 문화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오랜 시대를 거쳐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것을 일컬으며, 지역은 대개 한 시대의 경제, 정치 중심지였고 그 형성

⁶³ 런리웨이, 『천고의 역로 문화 추적 -중국 북송 사요시(使遼詩)에 나타난 지리 문화에 관한 고찰』, 『인문논총』24(2009), pp.257-277.

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민족 구성은 실로 다양하였다. 이는 즉, 특정 유형의 문화가 형성되고 시대를 넘어 전승되는 데에는 민족을 막론한 주체들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며,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조건은 그러한 소통을 원활토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목적이 뚜렷한 교류도 일방향적 영향도 아닌 문화적 ‘공유’를 이끌어낸다.

본 논문은 요대 바오산 묘가 대표하는 문화를 특정 민족에 귀속시키지 않고 요초와 五代에 중원과 북방지역에 걸쳐 널리 공유된 상류층의 문화로 간주한다. 오대는 여러 왕조의 패권다툼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했을지라도 당을 정점으로 꽃피운 중세 문화의 정체적 분위기를 쇄신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벌 세력인 절도사들을 중심으로 상류층 문화가 재편되면서 중원 지배자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또 그들의 활동지에 따라 보다 넓은 지역에 중원문화가 확산된 것이다. 요 또한 중원에 진출하여 오대 여러 왕조와 정치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배자의 문화를 공유하였다.

한족 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요의 정치적 입지를 재고찰하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당 멸망 이후의 중원지역은 후기 당(Post-Tang) 문화가 성립되는 중심지의 의미를 가지며, 그 문화는 요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점유한 여러 왕조 사이에 공유되었다. 둘째, 공유된 문화는 수용자와 수용지에 따라 변용, 변화되며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토착문화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외래문물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후기 당 문화의 지역적 변용은 이후 양식화를 거쳐 중원지역에 재수용 되면서 다채로운 송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바오산 묘의 독특한 건축구조와 벽화, 벽화 속 이미지의 사용과 전승은, 오대를 전후로 하는 중원의 시각문화 변동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keywords

요 Liao, 오대 Five Dynasties, 바오산 묘 Baoshan tombs, 고분 벽화 tomb murals, 후기 당 문화 Post-Tang culture

투고일 2015년 8월 17일 | 심사일 2015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4일

사료

『遼史 *Yosa*』

『舊五代史 *Guodaesa*』

『新五代史 *Sinodaesa*』

논저

羅世平 Luo, Shiping, 「遼代 墓室壁畫의 발굴과 연구 Discover and Research on the Tomb Mural of Liao Dynasty」, 『美術史論壇 *Art History Forum*』19, 2004.

서병국 Suh, Byung-kuk, 「요제국 거란족의 한족 통치사: ‘한거(漢契)일체적중화 사상’의 허구성 비판 The History of the Chinese Rule by Khitan Race of Liao Empire: Criticism to Fabrication of ‘One Body of the Chinese-Khitan Race Thought’」, 『고구려발해연구 *The Journal of Koguryo Balhae Studies*』29, 2007.

巫鴻 Wu, Hong, 李清泉 Li, Qingquan, 『寶山遼墓: 材料與釋讀 *Baoshan liaomu: Cailiaoyushidu*』,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Shanghai: Shanghai shuhuachubanshe, 2013.

吳玉貴 Wu, Yugui, 「內蒙古赤峰寶山遼墓壁畫“寄錦圖”考 A Study of the “Sending Embroidery” Mural in a Liao Tomb at Baoshan Qifeng, Inner Mongolia」, 『文物 *Cultural Relics Wenwu*』3, 2001.

吳玉貴 Wu, Yugui, 「內蒙古赤峰寶山遼墓壁畫“誦經圖”略考 A Preliminary Study of the Chanting Sutra” Picture in a Painted Liao Tomb at Baoshan Qifeng, Inner Mongolia」, 『文物 *Cultural Relics Wenwu*』2, 1999.

張鵬 Zhang, Peng, 『遼墓壁畫研究 *Liaomubihuayanjiu*』, 天津: 人民美術出版社 Tianjin: Renminmeishuchubanshe, 2008.

Johnson, Linda C., “The Wedding Ceremony for an Imperial Liao Princess. Wall Paintings from a Liao Dynasty Tomb in Jilin,” *Artibus Asiae*, Vol. 44, No. 2, 1983.

Rorex, Robert A., “Some Liao Tomb Murals and Images of Nomads in Chinese Paintings of the Wen-Chi Story,” *Artibus Asiae*, Vol. 45, No. 2, 1984.

- Steinhardt, Nancy S., *Liao archite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 Tsao, Hsingyuan, "From Appropriation to Possession: a Study of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Liao through Their Pictorial Trt," Stanford University Dissertation, 1996.
- Wu, Hung, *The Art of the Yellow Springs: Understanding Chinese Tomb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 Wu, Hung ed., *Tenth-century China and Beyond: Art and Visual Culture in a Multi-centered Age*. Chicago: The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2012.

Murals of the Baoshan Tombs and Visual Culture of the Early Liao Period

Ji, Minkyung

Dated to the early 10th century, Baoshan Tomb Nos.1 and 2 are the earliest known tombs of the Liao, also known as the Khitan Empire (907–1125). These tombs are located in a family graveyard close to Baoshan Mountain near the Liao capital city, *Shangjing*, which is in Chifeng (now Inner Mongolia). The tomb's occupants are unknown but believed to b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based on the tombs' location, large scale, and extravagant murals found in the interior. Khitan people practiced a number of unique funerary customs such as aerial sepulture, and so the adoption of tomb architecture such as the Baoshan tombs has been interpreted as evidence of the Sinicization of Khitan. To that end, the Chinese subject matter and painting style of the murals are also considered proof of Khitan's aspiration to become Chinese. However, tombs showing heavy influence from Han Chinese culture from the Central Plain like Baoshan tombs are rare in Khitanese society and thus it is hard to categorize such tombs and their decoration as a widespread social phenomenon. Instead, the limited scope of the Baoshan tombs' date, location, and social status of the occupants suggests that we should view the tombs as a phenomenon limited to the upper class of the early Liao period.

Through this new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use of Chinese-style decorated tombs of the early Liao dynasty, and shows that Khitan nobles identified themselves as rulers of China b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post-Tang cultur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Baoshan tombs in upper-class Liao society, this paper focuses on the attitude of Khitan rulers toward the Han Chinese and their culture rather than on the issues of cultural identity as a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foreign culture. By identifying the Liao as the ruling power of the Chinese Central Plain, coequal with the Han Chinese states of the Five Dynasties, this paper argues that Baoshan tombs resulted from the adoption of the Tang legacy and blending it with their own culture by the Khitan nobles.